

운동하고 진료받고 '활력충전'



3회 전등사기 강화 노인게이트볼대회 현장

게이트볼이란?

게이트볼은 T자형 스틱으로 볼을 쳐 경기장 내 3개의 게이트를 차례로 통과시킨 다음 골포에 맞춰 득점하는 경기다. 13세기 경 프랑스 남부 농민들이 개발한 운동으로 현재 유럽과 일본 등에서 생활 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다. 국내에는 1980년대 초반에 보급돼 현재 전국적으로 30여만 명 정도가 즐기고 있다. 신체에 큰 무리를 주지 않아 노인들에게 적합하며, 특별한 시설 설치가 필요 없어 학교 운동장이나 공터 등에서도 쉽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어떻게 쳐야할까?" 게이트볼 대회에 참가한 어르신이 신중하게 공을 칠 경로를 탐색하고 있다(사진 왼쪽). 이날 전등사 신도회 자원봉사자 80여 명은 1200여명의 음식을 직접 준비해 어르신들에게 대접했다(사진 위). 동국대 일산한방병원에서 마련한 무료진료실에서는 양·한방 의료봉사가 펼쳐졌다.

"바람 선선하고 햇살 따뜻하니 게이트볼하기에 딱 좋은 날이지."
 불비가 강화의 대지를 적신 다음 날인 4월 3일, 강화군 길상면 길상공설운동장에 지역 어르신 800여 명이 모였다. 전등사(주지 혜경)가 주관하는 '제3회 전등사기 전 강화 노인게이트볼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오전 8시 경기장에 도착한 이상식(74, 하점면) 할아버지는 "날씨도 좋고 마음도 좋다"며 게이트볼 스틱을 높이 들어보였다.

전등사가 지난 2006년부터 지역 화합 도모와 어르신 건강 증진을 위해 개최하고 있는 게이트볼대회는 올해로 3회를 맞았다. 읍·면·리 단위별로 게이트볼 팀이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게이트볼의 인기가 높은 강화 지역의 특성에 착안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잔치 마당을 열게 된 것이다. 올해는 농번기를 피해 대회 일정을 한 달 정도 앞당겼다.

전등사는 대회의 제반 경비와 상금, 기념품 마련 등은 물론 이날 1200여 명분의 점식식사와 과일, 떡 등도 준비했다.

80여 명의 신도회 자원봉사자들이 1개월 전부터 직접 행사를 계획하고 음식을 마련한다.
 지역 사암연합회 소속 사찰들도 떡과 간식 등을 십시일반 보냈다. 경기장 한쪽에서는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자원봉사자들이 무료 진료를 실시했다. 아파도 병원 한 번 가기 쉽지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그야말로 일거양득인 셈이다.

웃음과 여유로운 경기 분위기 "전국 어딜가도 이만한 행사 없어요"

대회는 오전 8시부터 시작돼 예선을 통과한 73개 팀이 12코트로 나눠 경기를 치렀다. 선수도, 심판위원들도 60~80대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라 경기 내내 웃음과 여유가 넘쳐흐른다.

"아이고, 좀 더 세계 찾아야지." "공을 이쪽으로 놓고 쳐." "저 양반은 귀가 잘"

안 들려. 크게 얘기해줘야 해."
 상대팀의 실수도 마치 내 일인 듯 아쉬워하는 탄식이 절로 터져 나온다. 윤경애(77, 홍왕면) 할머니는 "게이트볼 대회에 참가하려 중국도 가고 제주도도 가 봤지만, 전등사에서 하는 행사만큼 어른들을 잘 모시는 곳이 없다"고 말한다.

13번째 게이트볼을 즐기고 있는 윤

클 자비심을 가지고 경기를 즐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토너먼트 형식으로 경기가 진행되는 틈틈이 어르신 선수들은 전등사 신도회가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다. 신도회 김학수(68) 고문은 "어르신들이 오랜만에 모여 이렇게 어울리고 즐거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흐뭇하다"며 "강화 지역에 큰 교회도 많지만 사찰에서 앞장 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지역 분위기를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오후 5시까지 계속된 경기에서 결선에 오른 남정A팀이 신정B팀을 이겨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팀과 준우승팀, 3·4위 등 총 8개 팀에 총 500여 만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전등사 주지 혜경 스님은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행사를 하게 돼 기쁘다"며 "전등사는 앞으로도 지역민, 더 나아가 국민들의 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강화/글=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www.abccenter.or.kr

11 조계종 안양불교문화원 안양불교대학

귀의 삼보 하옵고
 지장선원·안양불교문화원·안양불교대학은 불타의 혜명과 조계종 중지를 봉
 대하며 불타의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전법과 불자님들의 교육 및 사회 복지
 사업을 위하여 신축불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극락정토 안양국에 세워질 도심속의 전법도량 신축불사에 무루 동참하시어 무
 량한 복덕 지으시고 세세생생 부처님 품안에서 구경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원불봉안 및 불사에 동참하신 분들에게는 돌아가신 후 영구위패를 봉안하여 사
 심구재와 기제사, 명절차례를 세세생생 모셔드리며功德비에 이름을 새겨 매
 일 천도 기도해 드립니다.

불자님들의 정성어린 한통의 전화로 신축불사가 이루어집니다.

안양불교문화원 ARS 신축불사후원금 060-707-1032 **연상회**
 신축불사상담 1588-1936

조실 지관 회주 세민 주지 현호 신도회장 심정구 수석고문 이필상